

이름없는 영혼들의 외침이 가득한 역사의 산하

-한길 문학기행 '태백산맥제'를 다녀와서-

80년대 한국문학사의 획을 그었다고 평가되는 '태백산맥'의 완간을 기념한 제3차 한길문학기행을 작가인 조정래와 고은, 박태순, 임현영씨등과 피아골, 노고단 화엄사등 지리산 일대를 둘러보고 왔다. <편집자註>

태백산맥에 눈 내린다
총을 때려라 총을 때려라
눈보라를 밀어내 우나
가슴속의 피 끓는다
참고 견디는 고향마을
만나려가자 출신이다
고난에 찬 산중에서도
승리의 날을 믿고노라
높은 산을 넘어넘어
눈에 묻혀 사라진 길을 열고
빨치산이 영(嶺)을 내린다
원수를 찾아 영을 내린다

◇항복을 피워 하늘과
땅에 오르며 하고, 술을
병에 부어 천천히 영
령을 부르는 초혼제

'태백산맥제'를 위한 출발전부
터 우라라와 깃에는 그날의
'빨치산의 노래'가 내내 울리고
있었다.

차창으로 시원하게 보이는 들
녘마다 이렇듯 농민들의 얼굴이
가득차 보였다.

피아골, 구례를 거쳐 드디어 속소
인 노고단에서 여장을 풀었다.
금방 뿌려놓은 핏빛 같은 산홍
의 단풍들이 유독 많은 이 곳 피
아골, 먼 옛날로부터 그 골짜기
에서 수많은 죽어간 사람들의 원
혼이 피어날까 하는 곳에는 지금
은 툭 초록으로 눈이 부시지만 하
다.

점점강 아래서부터 죽 뿔어나
온 섬강과 그 어귀까지 뿔거니
뿔거니 따라가며 양쪽 비탈에 일구어진
다랑이는 -비탈을 직각으로 깎
아 어렵게 만든-마져 바깥세상
지주들에게 빼앗기고 굶어 죽은
원혼들이 환생한다면 이곳에서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그
때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던지
아니면 산의 지질적 구조의 푸름
을 반겨 연극하는 지리산의 푸름
을 반겨 연극하는 지리산의 푸름
을 반겨 연극하는 지리산의 푸름

이제라도 지리산을 옮기고 있었다.
평범하며 어둡게 질 무렵 초
지동굴민학교의 운동장에서 이
곳의, 30만 영령들을 위로하는 이
'태백산맥제'가 시작되었다. 학
교를 둘러싸고 북쪽과 서쪽으로
산의 침묵이 뿔뿔히 서있으며,
남쪽으로 연극사부터 흐르던 계
곡의 흐름이 크게 소리치기도
그렇다고 아주 침묵하기도 않
은 채 옛이야기처럼, 그 바람처럼
흐르고 있었다. "오늘의 우리역사
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
가득히 생각해 보자"라는 말이
아 함이다"라며 짧게 인사말을
대신한 김연호씨의 표정에는 진
지함이 배어있었다.

'민족문화학자'의 회자자
격이 아닌 이땅에서 숨쉬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
으며 이제 빗에서 돌기로 참여하
여야 한다고 힘주어 얘기하는 노
시민 고은씨의 제언은 감동적이
었다.



◇작가 조정래는
왜곡과 굴절로 점철
된 분단사회의 참모
습을 복원하는 것이
오늘을 푸는 열쇠
라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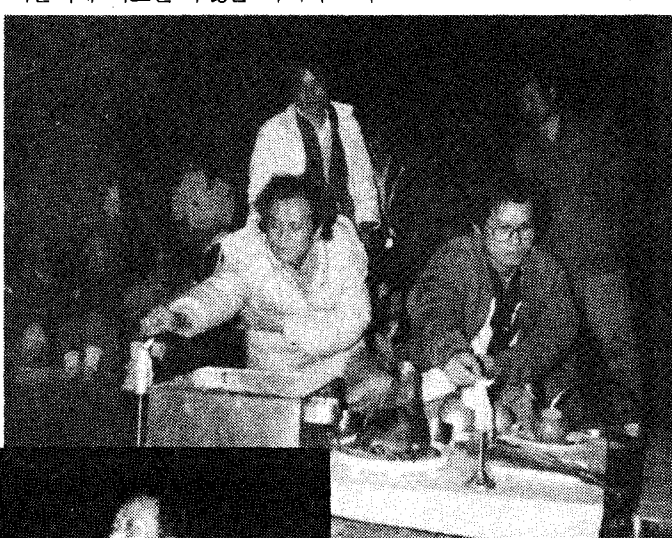
"자랑스런 핏빛 역사가, 피아골
골짜기와 노고단의 바람속에서 그민중의
뜨거운 함성으로 어둠을 재촉하는 하늘 아래로..."

'전도의신민속보존회'와 풍물
때 '전지경'의 뜨겁다 뜨거운 한
마당 곳곳이 벌어진 지리산의
모닥불의 불그스레한 기운이 참
석한 모든 이들의 얼굴을 붉게 물
들게 했다. 그리고 항복을 피워
하늘과 땅에 오르며 하고 술을
병에 부어 천천히 영령을 부른
것은 초혼제인 이땅에서의 산중
인 노고단의 제례를 읽는 소리와
함께 피아골 골짜기마다 가득하
게 울려 퍼지고 지리산에 묻힌
민중의 가슴속에 스며들고 있다.

남도의 흥겨운듯 하면서도 애
절한 가락이 외산신속보존회의
소리도, 전지경의 사물놀이하는
춤의 리듬도 절묘하게 살아나
고 있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다루고 있
는 시대는 흔히들 '민족사의 매
물시대' '현대의 실종시대'라
고 한다. 그것은 곧 시대와 그
를 치열했고 격렬이 심했으며,
분단사 속에서 또 그만큼 왜곡과
굴절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그
시대의 진실과 참모습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되살리느냐
가 바로 분단극복과 통일지향

일 것이다. 그 시대의 복원은 바
로 오늘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
다. 나는 그 작업을 위하여 수많
은 사람을 만났고, 여러 현장을
찾아다녔다. 소설을 쓰는 자는
책만대로 일 수 없는 것이다. 태
백산맥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작가 조정래는
왜곡과 굴절로 점철
된 분단사회의 참모
습을 복원하는 것이
오늘을 푸는 열쇠
라 역설했다

이들 날로뿐인 도시락을 챙
겨 들고 일행은 노고단을 올랐다.
관객과 등산객의 차로 인해 1
천5백미터의 노고단 등산로는
문명의 침묵함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바람의 마을, 그 노고단 정상
은 바람과 바람이 내내 마치지
못한 말들을 토해내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 웃자라, 모자라,
머리카락 모두 날리고 그 바람
은 아직도 남은 이야기가 있는
듯 보였다.

민족사에서 싸운 도시락을 들
고 운레라 불리우는 골짜기를
앞에 가득 펼쳐놓고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푸성귀, 콩나물, 미나
리, 바깥세상에서는 먹기 힘든
식 사일지 모르나 모두들 하나같이
깨끗이 비울 수 있었던 것도 오
랫만에 느껴보는 부둣함이 작용
한 듯 하다.

천왕봉 45킬로미터, 반야봉 32
킬로미터 등의 산정표표를 등에
두고 바람을 잠시 피해 일행과
주최측과의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일행중 몇몇은 꽤 의미있는
문을 던졌으며 임현영, 고은, 조정
래씨등도 성의있는 대답으로 짧
게는 했지만 깊이있는 시간을 보
냈다. 이미 백진기, 김명인등이
지적했던 노동자계급경제사화론,
'김범우' 등을 통해본 지식인
문 제들이 다시 되기도 하였으
나 태백산맥이 80년대의 역사소
설의 최고봉이라는 데 인식을 같
이 했다.

그 외에도 시인 고은씨는
'태백산맥'의 여타 결절에도 불
구하고 조정래씨의 무한한 가능
성을 기대하며 그의 패기를 문학
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칭찬하
지 않았다. 잠시 일행이 술을 들
리고 있는 중에 진도민속보존회
아주머니들의 들노래가 들려왔고
진도아리랑이 불려지자 일행은
노고단이 떠나가고 외쳐졌다.

"아리 아리랑 소리
라라라 나~ 오네~"
다음 목격자가 화엄사이고 보
니 길을 재촉하게 되었다. 노고
단을 내려와 화엄사로 향하는 길
은 그야말로 지독히 힘들다는 지
리산의 형세중의 하나인 듯 하
였다. 계속마다 어설픈게 깔아놓
은 돌길을 걸어가는 일은 무척
우리를 괴곤하게 하였다. 그나마
계곡의 물소리가 없었다면 너
자 땀은 나았을지 모르나 일
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숲과
숲사이 푸르름과 푸르름 사이
에서 일행의 땀과 숨을 내쉬고
바라본다 모습이 흠뻑 땀이
대의 이동과 비슷하지는 않을
까 하고 생각해 보는 이들이 많
은 듯 했으나 쉬엄쉬엄 갈수
있는 오늘의 현대인의 사회면
역이 그때와는 사뭇 다를 수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수많은 오
갔을 작가 조정래씨는 이번 길에
도 주위에서 쉽게 눈을 떼지
않는 눈여겨다. 한번이라도 더
눈여겨다. 한번이라도 더
눈여겨다. 한번이라도 더

리얼리즘 미학에 관하여

편집자 주: 리얼리즘(현실주의) 미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별 생각없이 받아들이고 보니 이 용어가 가진 의의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사실 이 용어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간간히 쓰여지고 있으나 본래의 정확한 용어사용은 아닌것 같다. 미학이란 미학이지 리얼리즘 미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의 정확한 용어를 쓴다면 아마 맑스-레닌주의 미학 혹은 부르조아 미학, 고대미학, 칸트 미학 등등의 용어를 '학'으로서의 미학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일상언어에서 쓰는 '미적 특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예를 때문인것 같다. 그렇지만 이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옳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용어를 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대의 미학이라는 창작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을 옹호하는 미학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영 옥
<중앙대 강사·미학>

예술의 본질적 특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당연히 예술이 잘못된 현실인식(현실의식)에 근거하여 창출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예술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일 수 밖에 없으며 한 예술작품이 얼마나 진정한 이데올로기(과학적, 비과학적)에 기반하는지를 하는 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일 뿐 결코 외립된 예술가들의 자화자찬에 대한 규정될 수는 없다.

리얼리즘 미학은 또한 예술의 적극적인 사회적 기능을 중시한다. 예술작품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의식산물이라 하더라도 결코 개인의 의식의 산물만은 아니다. 그것일 예술이 기원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예술은 엄연히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사회의식의 한 형태를 형성해왔다.

즉 예술은 사회의 성원들이 자신들이 사는 세계와 삶을 이해하고 그원한 삶에 대한 태도를 설정하기 위한 자기형식의 수단으로서 기능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예술의 기능이 진정한 의미로 사회의 인간행위를 위한 인간행위를 위해 기능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기능을 하는지 하는 것이다. 리얼리즘 미학은 바로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 미학입문을 위한 시리즈 (7)

예술의 특수한 소통형식으로 과학

현실의 과학화 통한 실천적 방향제시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얼리즘 미학의 내용도 리얼리즘이아말로 예술의 본질을 올바르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원리를 따라서 리얼리즘 예술의 발전을 추종하는 예술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실상 이러한 의미에서 그간 수많은 미학적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의 리얼리즘 미학이 확산되고 있고 또 확산해야 할 원리들에 대해 살펴 보기도 하고.

리얼리즘 미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은 예술이 넓은 의미의 현실의 반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규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리얼리즘 미학의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즉 예술적 의식이 이 것의 대상인 현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인식론적 규정이 우선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에 그친다면 예술이 '현실(리얼리티)'과 맺는 필연적인 관계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리얼리즘 예술의 성립 근거가 허물어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원리가 '예술의 인식적 기능'에 대한 것과 '예술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예술의 비합리적 측면이나 감성 예술이론들과는 달리 리얼리즘 미학은 예술의 인식적 기능을 중시한다. 물론 이는 예술이 현실의 단순한 모방이라는 뜻도 아니다. 리얼리즘 미학은 예술이 현실(모순에 의해 변증법적으로 추동되는 사회, 역사(현실)의 본질과 현상을 창작자적 각성이 인간(현실)에게 지니는 의미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을 때에만

이때부터 리얼리즘 미학은 예술을 무엇보다도 특수한 소통형식의 하나로 파악한다. 예술은 예술작품 그 자체라기 보다는 생산자 - 예술적 산물 - 수요자의 연결고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물론 예술적 산물이 이 소통과정의 중심고리라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산물의 생산은 철저하게 이 소통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수 밖에 없다. 즉 리얼리즘 미학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능을 염두에 두고 전달하는가의 문제를 작품의 산출을 위해 철저히 고려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작품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유한계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중산계층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해석을 제시할 것인가, 어떠한 예술언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될 문제인 것이다.

예술들이 노동자에게 노동해방의 정서와 이념을 제시하려 할 때에도 그들의 삶에 과정에서 그들이 이러한 내용을 어떠한 형식언어로 표출할 때 가장 잘 수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의 예술작품(정리)에 속하는 예술적 산물이 어떠한 공간과 시간에서 그들과 만나고 구체적으로 사회적 효과를 낼 것인가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포된 보편성과 합일될 경우에만 진정한 보편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박 웅 記者>

취직시험, 직장에서의 승진을 보장하는 '90년형 최신 TOEIC 시리즈!

'90 최신간 전6권
TOEIC 800 대책시리즈

- 경향과 공략법 (김명기 著 국문/4,000원)
- WORD POWER 대책 (박정호 著 국문/4,000원)
- IDIOM 대책 (윤창남 著 국문/4,000원)

대학원진학, 취직시험, 유학시험, 각종 고시 준비는 이것으로 끝!

'90 최신간 전6권
TOEFL 600 전략시리즈

- 문법/STRUCTURE 전략 (유기영 著 국문/4,000원)
- WORD POWER 전략 (윤창남 著 국문/4,000원)
- READING 전략 (박정호 著 국문/4,000원)
- IDIOM 전략 (정영진 著 국문/4,000원)

10년 영어공부를 단시일내에 해결해주는 희귀한 ELT교재!

영어신문·잡지를 재미있게 읽는 법
교실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英語
미국 英語 이라서 재미있다
나의 영어실력은? (Test Your English)

시사영어사가 독점수입 공급하는 영어회화교재!

Spectrum: A Communicative Course in English
New English Course
Side by Side
Side by Side (2nd EDITION)

스튜어디스

옥외 레스토랑, 곤돌라, 물의도시, Venice

눈썹 짙은 여인들이 사리를 휘날리며 걸어가는 India

북쪽으로 가는길 - Norway의 백야

전세계의 창의적인 영화가 모두 상영되고 있는 Paris

제25회 베르셀로나 올림픽, 황금의 태양, S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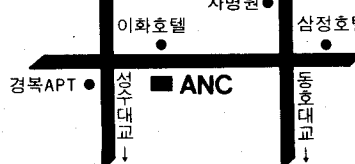
이 모든곳을 당신의 미래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내외 20여개 항공사의 Stewardess와 Interpreter 채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 교육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대행해 드리는 국내 최초의 교육·정보 Center입니다.

■ 방향특강
알찬방학은 A·N·C와 함께 계획하십시오.
Intensive Course (10주) 6월 25일 개강
*지금 바로 예약해 주십시오.

■ (Stewardess 3기생) : 5월중순 개강
Interpreter 2기생

■ 위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6-7 명진B/D.

☎ (代) 514-1346~9

AIRLINE NEWS CENTER